

묵상의 시간 (QT)

(시 1 : 1~3)

*"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과 직접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축복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녀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대답하여 교제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아름다운 관계는 지속되고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 (QuietTime)이다.



1. 묵상의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자.

◎ 시 143 : 8

◎ 딤후 3 : 17

◎ 빌 2 : 12

◎ 행 20 : 32

2.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으로 인해서이다.

◎ 히 10 : 19~20

2) 하나님이 나와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 시 1 : 2

3)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함으로 교제할 수 있다.(사모하는 마음)

◎ 시 95 : 7

4) 말을 적게 하고 잠잠히 ()을 바람으로 교제할 수 있다.

◎ 시 62 : 1

◎ 시 62 : 5

3. 묵상의 시간에 기억해야 할 살펴보자.

- 1) 묵상의 시간은 성경공부가 아니다.
- 2) 10~15절 정도로 분량을 정한다.
- 3) 15~30분안에 한다.
- 4) 규칙적으로 하려고 힘쓴다.
- 5) 시간과 장소를 정해 둔다.
- 6) 아침에 할 수 있으면 좋다.
- 7)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자.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후퍼와 도르톤 등 몇몇 학생들의 경건운동에서 비롯된 묵 사의 시간(Quiet Time)은 이들을 모두 캠브리지 7인의 중국선교사로 변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계속 나 타난다.

- * 묵상의 시간에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날수 있다.
- * 경건의 시간에 임할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도해서 나를 바꾸신다.
- * Q.T. - 내 삶에 적용을 목적함.
- * 한 구절만이라도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자.
- * 기도만 하는 것은 QT 가 아니다.

4.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묵상의 6단계 순서를 알아보자.

1) 먼저 읽으면서 전체의 뜻을 파악하고 ()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해진 분량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라.

* 말씀을 읽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함 - 마음에 드리고 입술로 고백

2)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듣고 생각하자.

()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간

3)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자.

*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

*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행할 약속을 주심

4) 내게 주시는 말씀(교훈)을 잘 듣도록(순종) 하자.

명령, 부탁, 위로, 격려, 약속, 경고, 책망, 본받을 것, 본받아서 안 될 것 등이 있다.

5) 나 자신을 돌이켜 보고 적용하자. ()인 적용이 변화를 가져온다.

6) 제목이나 ()를 정한 뒤 마무리 한다.

7) 오늘 주신 ()이나 적용을 위해 기도로 결단하자.

5. 묵상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1) 매일 나에게 현재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2) 만약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다시 듣고 적용할 기회를 주신다.

3) () 아닌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

4) 너무 비약적인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라.

5) 자기 합리화의 과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하라.

6)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 나눌 때 자기 한계와 합리화의 오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된다.

◎ QT 나눔의 7가지 유익점.

1. 서로 자기 적용을 나누다 보면 자기 적용 훈련에 좋은 기회가 된다.
2.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한다.
3. 믿음의 열등의식을 극복한다.
4. 남의 잘못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겸손과 자기 고백을 한다.
5. 모두 불완전함을 발견한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됨.
6. 참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난다.
7.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

6. 묵상의 시간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묵상의 시간에는 들은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1) 삼하 7 : 18~29 에서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의 기도를 드렸는가?

2) 창 15 : 1~9 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3)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잘못을 깨달았으면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한다. 마 14 : 13~21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4)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는 반드시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 막 10 : 35~45 을 통해 만약 묵 상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는데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살펴보자.

5) 말씀의 실천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히 11 : 6 을 통해 우리의 기도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자.

7. 묵상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만남의 시간이다. 우리는 그 분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전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1) 지적인 성장과 성숙 - 25% 본문이해
- 2) 정서적인 성장과 성숙 - 60% 은혜와 감사 -> 40% 까지 감소
- 3) 의지적인 성장과 성숙 - 15% 적용, 실천, 기도 -> 30% 까지 성장

8. 묵상의 시간은 평생의 작품이고 훈련이다. 어떠한 훈련인가?

1) ()를 버리는 훈련이다.

◎ 히 6 : 1

2)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이다.

◎ 롬 12 : 2

3) ()을 지켜 나가는 훈련이다.

◎ 잠 29 : 18

4) ()과 동행하는 훈련이다.

◎ 창 5 : 21~24

5) ()로 가는 훈련이다.

◎ 마 7 : 14

6) 지속적인 말씀 훈련이다.

◎ 히 5 : 13~14

적용 /

이번과의 가르침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 중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한 후 서로 나누어 보자.

기도 /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자.

